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4년 포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한 어머니의 요구

(마 20:17-28)

A Mother's Request

(Matt. 20:17-28)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본문에는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이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수난을 받으시면서도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처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있을 십자가의 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많이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누가 어떤 요직을 맡게 될 것인가를 예민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The text Matthew 16 and 17 mentioned the third suffering of Jesus Christ. While Jesus received suffering, He might have wanted to confirm His disciple's conviction about the gospel. But the disciples, without regard for anything, only thought of their own situation.

Even though Jesus talked about the sufferings of which He would die on the cross, His disciples did not hear a word of Jesus. This is the reason why their mind was completely captivated by what they wanted. Although Jesus argued with the Pharisees leaders and Jewish, His disciples clearly accepted that the new world of Jesus Christ would come as fact. Therefore, they sharply checked and studied that if a official of new government took office, he would take on an important post.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1절).

그런 가운데 한 여인,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두 아들의 입지에 관해 간청합니다. 당시 야고보와 요한의 가정은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사회의 특권층에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의 간청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2절)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무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와 바램은 이렇게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앙은 이 세상의 원칙과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출세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점점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도 했고 헌신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이 이 땅의 기준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은 한 마디로 'Let God be the God(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할 때 시작됩니다.

"Grant that one of these two sons of mine may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kingdom" (v. 21).

Meanwhile, a woman, mother of James and John, knelt down and begged

for the position of her two sons. At that time, the family of James and John had a financial power, was socially a privileged class, and, above all, she was a sister of Jesus mother. By considering it worldly, it is no wonder that her request was right. However, Jesus sternly said,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v. 22). When we cannot distinguish God's will from the worldly things, because of our stupidity about the Bible, our prayer and desire can be unreliable like that.

Our faith for Jesus in which we believe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worldly principle rule and method, and the worldly pursuits. The worldly people all struggle to obtain a successful life. They rise to a very high position and want to hold power. Thereby, other people bow down to me. But those who believe in Jesus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worldly people and come down to a position lower and lower, and come to the serving position that is more modest. That is the reason why Jesus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give his life on the cross in order to get lower.

There is a share of faith for us. We were loyal to God and made a commitment. We calmly come to God and pray in modest. Nevertheless, we should not ignore that our desire is dangerous by the criteria of this earth. The reformer of religion,

Luther's theology is "Let God be the God." That is correct. Our faith begins when we let our life be with God.

My beloved Christians,

Who is God for you? Who is Jesus Christ whose hands and toes were nailed and died on the cross for atonement?

By looking the disciples, and James and John, and their mother, what we should meditate on? What is the cup in which we drink with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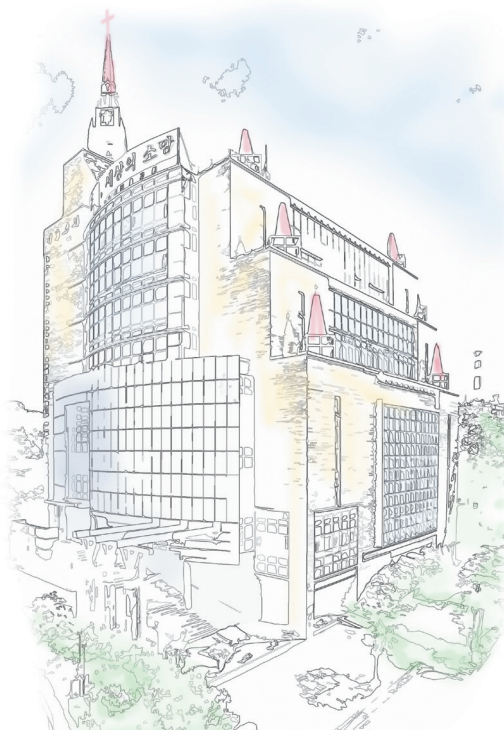
You should become lower and serve with Jesus who came to the world to serve. As a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receiving a complimen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수난 앞에 서있는 제자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가 목상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섬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섬기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라고 칭찬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양한 연말 성탄 행사

- 오늘, 3부 예배후 교사총회 / 임마누엘 찬양대 성탄절기 찬양
- 12월 21일(주일) : 교육부서 성탄축하 특별행사(성탄 뮤지컬)
- 12월 24일(수) : 수요일, 2부 통합 성탄 전야예배

연말과 성탄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3부예배 후 본당 2층에서 교사총회로 모인다. 지난 주 임명 받은 모든 교사들은 참여바란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 특별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 양춘경 장로)의 성탄절기 감사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21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부서 성탄축하 특별행사(성탄 뮤지컬)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 성탄축하 특별행사는 유치부/유아부(성탄 찬양 및 율동), 사랑부(요셉과 헤롯), 유년부 엔젤스(요셉과 마리아의 러브 스토리), 마리아/엘리사벳(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가), 중고등부/초등부 글로리아(임마누엘), 험시바(오늘 나실 다윗의 자손), 러브 레

터 & 힐러(주께 영광), 유초등부 연합찬양대(모두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전 출연자들이 연합으로 "주 오셨네" 성탄찬양을 드린다. 12월 24일 성탄전야 수요일예배는 1, 2부 연합으로 오후 7시에 드린다. 교회 학교 학생들(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배다부)이 준비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수요일예배를 시작하며, 예배 후 당회원들의 산타 선물 증정 순서가 진행된다.

성탄절 당일에는 새벽 5시에 성탄절 새벽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축하예배는 오전 9시, 11시에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2015년 바뀌는 것들

- 교회 표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 12:1-3)
- 5~6월 중 교구 특별찬양
- 7월 중 김치신학세미나
- 10월 중 향존직 훈련
- 신혼가정공동체와 장년부 오후반 통합
- 2014년에 토요일에 모인 꿈나무 영어성품스쿨이 2015년부터 어린이찬양예배와 통합되어 주일에 모인다.

농어촌100교회 · Vision2020 한 가정 한 선 교사 후원 접수 중

2015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20 운동,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 후원자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는다. 내년에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호기 엘리베이터를 노약자 전용으로

오늘부터 1호기 엘리베이터를 노약자 전용으로 사용한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2015년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 2015년 총회주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마5:3-12) - 영어예배부 1월 16일(금)~17일(토)

교회는 지난 주 2015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및 주제, 강사 등을 확정하였다. 모든 교육부서 담당자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되도록 한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7(금)~2.28(토)	서울교회	하나님, 저 왔어요!	박노철 목사 / 구분혜 전도사
유치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박노철 목사 / 양세라 목사
유년부			복음으로 사는 유년부	박노철 목사 / 고수은 전도사
초등부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박노철 목사 / 김안성 목사
중등부	1.22(목)~1.24(토)	아가페타운	예수님을 만났어요!	박노철 목사 / 이진광 전도사
고등부	2.26(목)~28(토)	아가페타운	복음을 통해 얻는 자유	박노철 목사 / 천세중 목사
청년1부	2.12(목)~14(토)	아가페타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마6:10)	서준권 목사
청년2부				장재원 전도사 / 정대는 전도사
사랑부	2.15(주일)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부	박영준 목사
예배다부	1.31(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박노철 목사 / 임규현 목사
디아스포라	1.17(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사는 디아스포라부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1.16(금)~17(토)	아가페타운	FELLOWSHIP IN CHRIST	김다니엘 목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6)

(문 156)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신가요?

(답)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은 원수에게 복수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계시던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케 하시는 분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약성경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관한 구절이 신약성경에서 보다 더 많이 나타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은 성경전체 분량의 사분의 삼에 해당하는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수와 진노가 더 많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컨대 신명기서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누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다는 것이 가장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신7:8)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시103:13). 이와 같은 말씀은 렘31:3에도 그리고 구약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이 26회나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부각되어 있으며 특히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위해 못 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나 요3:16, 롬8:31-38 등에서 자기 자녀에 대한 영원하시고 참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 그러하듯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요3:36, 롬 1:18, 2:5-6, 살후1:6-9, 계6:15-17, 14:9-11 등에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말씀합니다.(신4:24, 계12:29)

(다음 주 계속)

새가족 위원회 총회

새가족 위원회 총회가 오늘 3부예배 후 602호에서 모인다.

하반기 회계 감사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부서장 결재후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란다.



초대합니다 - 임마누엘찬양대 성탄절 감사찬양

외치세! 기쁜 소식! Shout the Good News!



양준경 장로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온 누리가 하얀 눈으로 뒤덮힌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집까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의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송축하기 위해서 온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동등 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세로 멸시와 천대,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탄생하신 이 날을 축하드리려고 임마누엘 찬양대가 성탄의 기쁨을 송축하는 특별찬양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015년을 섬길 일꾼들

교회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홍일성 집사
(스테반회 회장)

스테반회를 섬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서울교회 23년의 역사속에 안수집사 모임인 스테반회 회원들의 헌신이 교회의 부흥에 힘이 되었고 회원 300명이 넘는 교회의 큰 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숫자의 성장만큼 회원 모두가 스테반회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테반 집사와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었는지, 담임목사님의 목회지침에 따라 적극 봉사하고, 감사와 기도로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였는지 뒤 돌아보니 아쉬움을 느낍니다.

2015년 스테반회는 첫째, 말씀과 기도속에 실천하는 스테반 회원이 된다.

둘째, 모이는데 힘쓰는 스테반 회원이 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안수집사로 임직 받은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스테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1서3장18절 말씀을 붙잡고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기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온유와 겸손의 종으로 교회와 스테반회를 섬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애 권사
(제2권사회 회장)

미처 한해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제2권사회장이라는 중직으로 교회의 부름을 받고 보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지만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 택하고 부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최선을 다하여 임원들과 더불어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권사는 본래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을 다해 달려왔던 것처럼 오는 2015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서울교회가 되는 일에 제2권사회가 중심에 서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교회와 교역자님들과 성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특히 연약한 자, 곤고한 자들을 심방하며 돌아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간계획에 따라 성례를 준비하고, 진중세례식에 참여하며, 나눔의 집 운영 등 교회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제2권사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리하여 내년 이 시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바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신영 권사
(제1권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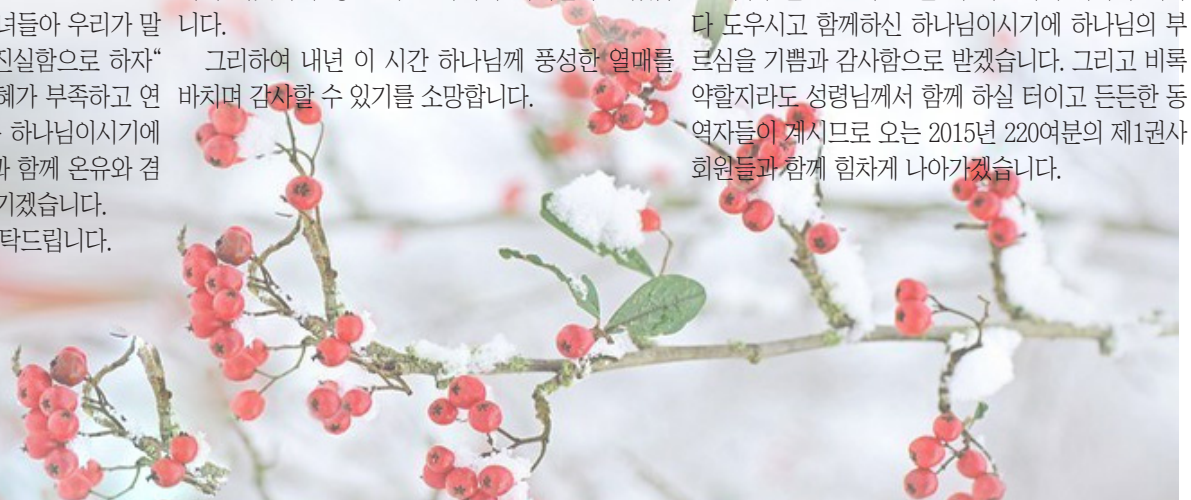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자를 제1권사회장으로 부르시어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년도 제1권사회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생각이 참으로 많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매사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서울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 세계교회를 가슴에 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박노철 담임목사님의 목회를 힘껏 돕는 제1권사회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권사회 본연의 기도와 심방과 구제에 힘쓰며 220여분의 제1권사회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므로 교회에 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직 섬기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낮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제1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오늘 이 시간까지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이기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약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터이고 든든한 동역자들이 계시므로 오는 2015년 220여분의 제1권사회원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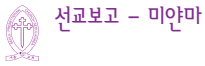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눅 1: 30-33)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임마누엘찬양대(대장:양춘경 장로)의 성탄축하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류충기 집사의 지휘로 성탄절칸타타 "외치세! 기쁜소식(Lloyd Larson 곡)"의 '한 아기 우리위해 나셨다', '아기 예수, 왕의 왕', '언약의 아기'등 아기 예수의 탄생과 왕의 왕으로 오신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곱곡의 찬양곡을 연주한다.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양경실 집사, 팀파니스트 이진주 선생과 아멘관현악단(지휘:임범창 집사)이 협연한다.



지난 한해 감사드립니다

벌써 2014년 이 다 저물어갑니다. 그 동안 부족한 사람을 후원하여 주신 서울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성탄인사와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과거 10%에서 14%로 증가, 종교간 갈등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도를 서서히 힌두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종교학은 대부분 서양 학자들이 썼습니다.

인도차이나도 정치적으로 갈수록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바마는 지난 11월 중순 미안마를 방문, 미안마 개혁속도가 늦

다고 압력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였습니다. 과거적으로 양곤대학에서 장시간 연설을 하고 대학생들에게서 질문을 받고 답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을 선동한 격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데모는 하면서도 불교를 버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 사진은 어느 시골교회 전도사, 부인, 딸입니다. 이 딸은 중학생 3학년인데 아침조식시간 불교식 예배에 2천명 학생 전원이 다 절하지만 이 학생만이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참여를 거부하여 많은 시련을 당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특하여 우리 선교팀이 대학입학하면 등록금을 다 대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지난달 학생 모집 차 이 지역을 방문, 이 교회를 방문 하였습니다. 전도사는 사병출신이지만 부대에서 주일 오후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미안마에서 드문 일꾼입니다.

새해에도 서울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안마개혁장로교신학교총장 전호진

2014년 장한 어머니상 시상 - 12월 17일(수)까지 신청 -

우리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부모가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성도로서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4일까지)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12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시상한다. 해당 되는 어머니는 12월 17일(수)까지 교구지도목사에게 신청 바란다. 또한 교육부서(유아부~고등부)에서 1년 개근한 자녀들의 어머니에게도 장한 어머니 상을 시상한다.

동 정

■ 이중운 원로목사는 12월14일(주) 군선교현신예배 설교한다. 15일(월) 미래한국송년의 밤, 고 김상철장로 추모예배 설교한다. 16일(화) 예장 대신-백석동향선신 찬양 총회개회 예배 설교한다.

■ 독주회 : 11교구 최수황 집사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12월20일(토) 오후5시 안동교회(733-3395)

■ 오르간음악회 : 12교구 차주연 집사 '대강절 파이프 오르간 음악회' 12월 15일(월) 오후 7시 30분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산교회 한나전도회(12.14) 베드로산교회 에스더전도회(12.21)

■ 금주의 식사 제공 :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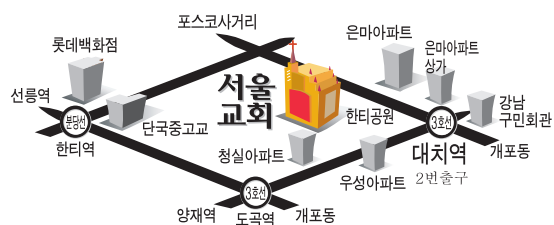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주일(21일)예배와 성탄전야예배(24일)에 모든 성도들 모여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 성탄주일 찬양예배시에 드리는 우리교회 다음세대들의 예수님 생일 축하 발표를 통해 주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3. 우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